

스마트공장 추진 中企, 삼성전자로부터 혁신 노하우 전수

중기중앙회·중기부·삼성전자

중소기업 CEO 광주사업장 초청
냉장고·모터 등 제품라인 견학
중기 제조·ESG역량 강화 지원

중소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달려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부, 삼성전자와 함께 올해 스마트공장 선정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300여 명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초청해 삼성의 스마트공장 사례를 소개하는 행사를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제조현장 투어와 우수기업 시상 및 사례발표, 삼성전자의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가이드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성민 국민의



5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방문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힘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우수기업 사례발표에서는 ▲스마트공장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업계의 품질 향상을 주도하고 있는 '에바'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해 실시간 생산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불량

률과 출하 리드타임을 감소시킨 '한서정공' ▲60년 전통기와 제조기업으로 스마트 제조공정을 구현해내며 매출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산청토기' 등 총 3개 기업의 성공 사례가 소개됐다. 이들 3개 업체는 이날 행사에서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후 중소기업인들은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제조현장을 투어하며 냉장고·모터·금형·인쇄회로기판조립(PBA)·컴프레서 등 제품라인을 살펴봤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접목 시스템 운영, 자동화 설비, 물류 최적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노하우 등 현장혁신 사례를 직접 보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혼자만의 성장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함께 나누는 사업'으로 성장해 왔다"며 "그동안의 지원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 및 ESG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기업,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사회적 난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경준 회장은 "삼성 스마트공장 사업은 중기부, 중기중앙회, 삼성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중소기업의 만족도와 성과가 높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 질적 고도화와 함께 지자체 협업사업, 식품업 지

원사업 등 사업모델을 다각화하여 스마트공장 사각지대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기부, 삼성과 함께 2018년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2188개사를 지원했다. 올해는 190여개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삼성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92.3%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95.2%는 상생형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지속·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스마트공장 사업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삼성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고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탄소중립, 산업안전 등 산업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기부, 삼성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산업·에너지 R&D 예산 5.6조 '역대최대'

산업부, 편성액 전년비 9.6% 증액 6대 첨단산업에 1조2600억 배정

내년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이 5일 대한상의에서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년 연구개발 예산 편성안과 투자 방향을 설명했다.

산업부가 편성한 내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은 5조 5701억원으로 올해 5조 802억원 대비 9.6% 증액됐다. 일반예산에 편성된 융자 방식 연구개발 지원(2025년 1200억원)과 일부 사업의 우주항공청 이관 등을 고려하면 2023년보다 722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 초격

차 기술 확보에 각각 1조 2600억원(1600억원 ↑), 1조 8200억원(840억원 ↑)을 배정했다. 디지털·친환경 전환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에 6600억원, 사람을 키우는 연구개발에도 2600억원을 투자한다.

작년 구조개혁으로 축소됐던 지역혁신, 성장사다리, 사업화 연구개발은 지원방식을 개편했다. 지역혁신 사업은 지역 단위 뿌려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산업 지형을 고려해 '초광역권 특화산업'을 수월성 기반으로 선별 투자한다. 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사업은 반도체 등 전략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혁신성이 높은 과제를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사업화 지원은 CVC투자연계사업 신설, 첨단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융자형 방식을 확대한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연구개발 기획-수행-평가 전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기획단계에선 기존 답다운 방식이 아니라, 대상품목과 기술목표만 제시하고 연구수요자들이 스스로 상세기술을 정하는 품목지정 방식을 적용했다. 또 현장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과제 공고도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수행단계에서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에 공동연구기관 구성과 연구비 배분 등 과제 진행의 전권을 부여하는 'Cascading 방식'을 9개 과제에 시범 도입했다. 평가단계에서도 연구과제의 도전성과 혁신성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산업부가 직접 수행하는 무기명 자문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형 사업 신규과제의 30% 이상인 474개 과제가 세계 최초·최고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앞줄 왼쪽 2번째)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5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성장사다리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中企·벤처 정부지원 더욱 절실한 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5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의 연체율 상승, 휴·폐업 증가 등 경영여건이 크게 어려워진 가운데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중소·벤처·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올해 처음 열린 '성장사다리 포럼'에서 이같이 전했다.

최 옴부즈만은 지난달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옴부즈만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중소·벤처·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장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회원사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포럼에는 중소벤처기업·여성기업·청년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8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새로 참가했다. /김승호 기자

쌍용C&E, 포스코와 탄소배출 저감 맞손

탄소 포집·활용기술 개발 업무협약

쌍용C&E가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철강, 건설업과 함께 탄소배출 저감에 나선다.

쌍용C&E는 지난 4일 부산 벡스코에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국가기간산업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주요 국가기간산업인 시멘트산업과 철강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쌍용C&E와 포스코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 저감을 위한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현장에서 기초 자재로 재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쌍용C&E 관계자는 "최근 3년여의 연구를 거쳐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석회석시멘트를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산공정 중 탄소 포집이 가능한 프로세스의 검토 및 검증, 탄소 포집물을 활용한 시멘트 자원화 기술에 대한 가시적 성과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벤처기업협-대한의학회 '이민화 의료창업상' 공모

벤처기업협회가 대한의학회와 함께 '제2의 이민화'를 찾기 위해 제9회 이민화 의료창업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5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이민화 의료창업상'은 우리나라 의학 및 의료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대한민국 벤처생태계의 선각자이고 이민화 명예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제정됐고 협회가 후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대한민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 또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우리나라의 의학 및 의료산업 발전에 공헌한 창업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해당된다. 수상자는 각 부문별 1인씩 선정하며 시상식은 내년 1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자에게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김승호 기자

인도 소프트웨어 인재 103명 韓 벤처 입사

중기부, 채용 연계사업 중간 점검

인도 소프트웨어(SW) 전문 인력 103명이 한국 벤처기업 30개사에 입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SW 전문인력 채용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인도의 우수한 SW 개발자 200명 채용 연계를 목표로 사업을 론칭하고 중간 실적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월 인도 뉴델리에서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인도 SW 개발자를 모집하기 위해 채용설명회를 3회 개최해 약 1000여명이 참여했다.

사업 주관기관인 벤처기업협회는 인도공과대학 동문재단(Pan-IT Alumni Foundation)과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더불어 지난 2월부터 매달 구인 기업모집을 시작해 지난달까지 324개사가 신청해 이 가운데 91개사가 395건의 면접을 통해 최종 30개사가 103명의 인도 개발자를 채용했다. /김승호 기자